

육아정책 Brief

통권 제17호 | 발행인: 이영 | 발행일: 2013년 9월 10일 | 발행처: 육아정책연구소

09 September

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 필요

I. 아버지 양육참여의 의미

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아동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. 그러나 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, 제도적 개선이 여전히 미흡한 상태임.

- 아버지 양육참여의 양과 질은 어머니의 양육참여와 함께 아동발달에 큰 영향력을 미침.
- 핵가족화, 여성 취업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지원은 매우 필요한 상황임.
- 자녀양육을 여성의 책임으로 보는 사회적 통념이 여전히 존재함.
-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미디어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나 단기적이고 일회적 성격이 많아 지속적인 사회 확산력은 미흡함.
- 직장의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 및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아버지들의 양육참여를 기대하기 힘들.
 - ▶ 아버지 역할과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현실적인 상황은 괴리가 있음.
 - ▶ 장시간 근로와 회식문화로 인해 양육참여의 절대적 시간이 부족함.
- 아버지 양육참여의 현황을 인식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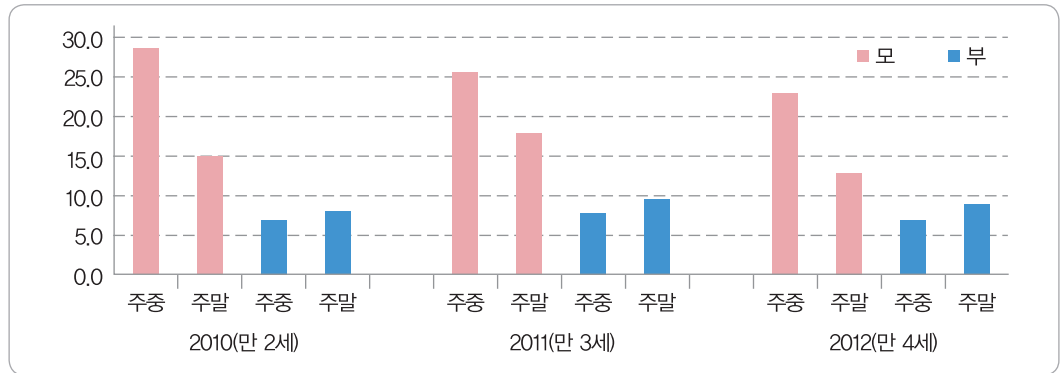
II. 아버지 양육참여 시간¹⁾

아버지의 연령이 젊을수록, 근무시간이 짧을수록, 어머니의 양육참여 시간이 길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시간이 길어짐.

- 아버지의 양육참여 시간은 어머니의 양육참여 시간에 비해 적음.
 - ▶ 아버지의 양육참여 시간은 주중과 주말을 합쳐 자녀가 만 3세일 때 17.5시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, 만 4세 일 때 15.8시간, 만 2세 일 때 15.0시간임.

1) 평균 일주일의 총 시간을 기준으로 한국아동패널 3차(아동 연령 만 2세)부터 5차(만 4세) 조사에 참여한 패널 가구의 자료를 이용하여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시간을 분석하였음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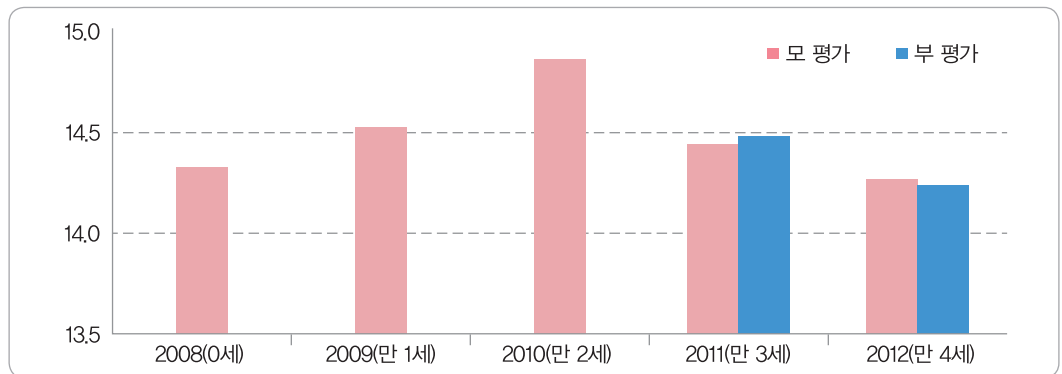
[그림 1] 부모의 양육참여 시간

- ▶ 어머니의 양육참여 시간은 만 2세일 때 43.8시간, 만 3세일 때 43.6시간, 만 4세일 때 35.8시간임.
- 아버지의 연령, 아버지의 근무시간, 어머니의 양육참여 시간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.
 - ▶ 아버지의 연령이 젊을수록, 아버지의 근무시간이 짧을수록, 어머니의 양육참여 시간이 길수록 아버지의 양육참여 시간이 길어짐.

Ⅲ. 아버지 양육참여의 양상²⁾

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만 2세 시기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, 만 3세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.

- 자녀의 연령 변화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 양상³⁾이 달라짐.
 - ▶ 아버지 양육참여는 자녀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조금씩 증가하다가 3세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.
 - ▶ 아버지들은 자녀가 만 2세 시기에 가장 많이 양육참여를 하고 있음.
-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에 대해 아버지 본인과 어머니가 동일하게 인식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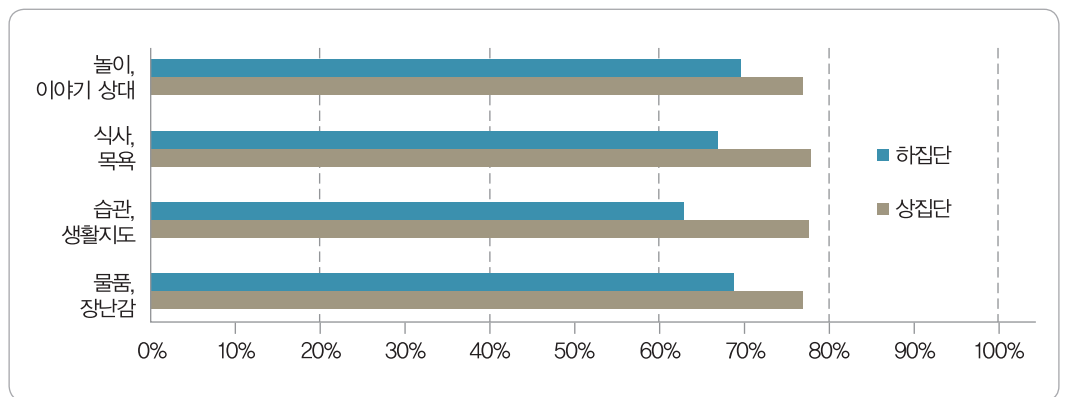


[그림 2] 아버지와 어머니가 인식한 아버지의 양육참여⁴⁾

2) 한국아동패널 1차(아동 연령 만 0세)부터 5차(만 4세) 조사에 참여한 패널 가구의 자료를 이용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를 분석하였음.
 3) 아버지의 양육참여 네 문항에 대하여 '대체로 그렇다' 이상을 상집단, '대체로 보통이다' 이하를 하집단으로 정의하여 양육참여의 지속성을 분석하였음.
 4)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에 대한 어머니의 평가와 아버지 본인의 평가를 나타낸 것임. 평가문항은 4개 문항을 각 5점 척도로 하여 총 20점 만점임.

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따른 상·하집단 모두 5년 동안 최초로 응답한 집단을 유지할 확률이 70~60%로 높게 나타나, 초기 아버지 양육참여 정도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음.

- 아버지의 양육참여 양상은 참여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짐.
 - ▶ 아버지의 양육참여 내용은 물품 및 장난감 구입, 습관이나 생활지도, 식사 또는 목욕, 놀이 및 이야기 상대 등과 같은 양육참여를 하고 있음.
- 아버지의 양육참여 네 문항 각각에 대한 5년간 전이 확률의 분석 결과를 보면 공통적으로 최초로 응답한 집단을 유지할 확률이 상·하집단 모두 70~60%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.
 - ▶ 특히 '놀이 및 이야기 상대'로서의 아버지 역할이 낮았던 집단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한 후에도 낮은 집단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.



[그림 3] 아버지 양육참여 상·하집단의 지속성

IV. 아버지 양육참여가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⁵⁾

아버지의 양육참여 시간이 길수록 자녀의 언어발달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.

- 아버지의 양육참여 시간은 자녀의 언어발달과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침.
 - ▶ 아버지의 양육참여 시간이 길수록 자녀의 표현어휘력 점수가 높음.
 - ▶ 아버지의 양육참여 시간이 길수록 자녀가 친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음.
-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 내용에 차이가 있음.
 - ▶ 아버지가 아이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수록 친사회적 행동이나 대인 관계 기술을 사용하는 놀이상호작용이 많음.
 - 이러한 아버지의 자녀는 불안/우울,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낮은 주의집중,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적음.
 - ▶ 아버지가 아이에게 음식 또는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일을 자주 할수록 놀이상호작용이 많음.
 - ▶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놀아주거나 이야기 나누기를 많이 할수록 자녀가 놀이단절과 놀이방해를 덜 경험하고 긍정적인 놀이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남.

5) 한국아동패널 1차(아동 연령 만 0세)부터 5차(만 4세) 조사에 참여한 패널 가구를 대상으로 양육참여 시간과 양육참여에 따른 언어 발달과 또래 상호작용 및 문제행동 분석 결과임.

V. 아버지 양육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

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, 국가 정책을 기반으로 한 직장의 유연근무제와 현실적인 휴가제도의 확산이 요구됨.

공익광고 등 적극적인 미디어 홍보를 제공하여, 아버지 양육참여의 중요성을 알리는 사회적 인식 확대가 절실함.

- 아버지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함.
 - ▶ 직장의 적정근로시간을 권장하고 유연근무제와 부모휴가제도의 확산이 요구됨.
 - ▶ 어머니의 양육참여 시간 대비 아버지의 참여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아버지 참여 독려가 필요함.
-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위한 직장문화와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한 지원이 요구됨.
 - ▶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의 독려와 함께 직장 내 아버지학교의 운영과 가정에서의 양육참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.
- 공익광고 등 적극적인 미디어 홍보를 제공하여 아버지 양육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가 필요함.
- 가족친화적 기업문화와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범국가 지원정책이 필요함.
 - ▶ 회식문화를 최소화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위해 '가족의 날'을 지정하도록 함.
 - ▶ 휴가제도를 활성화하여 평등한 부모역할을 지원함.
- 아버지의 양육참여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결혼 초기 또는 임신 초기부터 아버지 양육참여 프로그램과 교육이 필요함.
 - ▶ 서울과 일부 시·도에 집중되어 있는 프로그램과 교육이 지자체와 지역사회 등으로 확산되어야 함.
 - ▶ 아버지 대상 교육 프로그램은 아이돌보기와 놀아주기 등의 실제 양육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을 포함해야 함.